

병커C유 수십억원 어치 빼돌린 일당 검거

병커C유 불법 유통·판매 일당 36명 적발 절도·횡령·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 검거 평택·인천항 외항선 대상 병커C유 빼돌려

외항선에 있는 수십억원 상당의 해상용 병커C유(해상유)를 몰래 빼돌려 팔아온 선장과 운전기사 등 일당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병커C유를 절취해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 36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업무상 횡령, 석유사업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병커C유 절취처 선장 A 씨와 운반책 탱크로리 기사 B 씨, 보관책 불법저장소 운영자 C 씨 등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평택·인

천항에 정박해 있는 외항선을 대상으로 병커C유를 빼돌리거나 주문량대로 전량 주유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133회에 걸쳐 224만 리터(ℓ)를 절취 및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커C유는 외항선 선박에 공급되는 기름으로, 이들이 육상으로 빼돌린 양만 18억70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파주시에 있는 불법 저장소로 기름을 빼돌려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경찰은 평택항 인근의 기름 공급 장소 주변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잠복하고, 평택항에

서부터 불법 저장소가 위치해 있는 파주시까지 차량을 추적했다.

아울러 불법 저장소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요금소 통과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장면을 확인한 뒤 급유선 및 불법 저장소 등 5곳에 대한 압수 수색, 계좌 10여개 추적, 탱크로리 차량 이동내역 1000여건 분석 등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A 씨 등 피의자 36명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와 함께 파주 저장소에 보관된 4만9000ℓ 상당의 병커C유를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에 해상 병커C유의 육상 유통이 대기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통보하는 한편, 해상용 불법유통에 따른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고발 조치했다.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적인 연료 절취·유통 및 장물 처분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김희면기자



광주전남지방방무청,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첫 수송

광주전남지방방무청(청장 김용무)은 22일, 올해 첫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수송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교육생 수송을 시작했다.

이슬비기자



강진소방,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 빈도 증가에 따른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담양소방, 무정농공단지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현장지도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지난 18일 무정농공단지 방문해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 일환으로 소방대상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소방,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 당부

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 생활안전순찰대는 겨울철 화재 위험성이 높은 난방시설인 화목보일러의 화재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광양경찰, 자율방범대장 위촉식 및 간담회 실시

광양경찰서(서장 최병운)는 지난 22일 자율방범대장 위촉식 및 민·관·경 합동 야간순찰을 실시하였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완도해경, 든든한 파트너 민간해양구조대 사무실 개소식 참관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19일 원거리 해양사고 발생 시 민·관·경 합동 해양사고 대응으로 구조 효과를 높이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금일해양구조대 사무실 개소식" 참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대법 "환경오염 피해, 개연성 증명하면 배상해야한다"

"피해자 인과관계 증명부담 완화한 것"

환경오염 사건에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면 직접 증명이 되지 않았더라도 오염자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충남 금산군의 지역 주민들이 인근 불화수소 하역시설을 설치·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 인정과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A사는 2016년 6월 충남 금산군 내 공장에서 불화수소를 싣는 작업 도중 하역시설 내부로 2370kg 상당의 불산, 하역시설 외부로 약 444.6kg 내지 871.3kg 상당의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누출된 불산이 증발해 약 33.04kg 상당의 불화수소가 기체 상태로 확산했으며,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원고)이 기침, 가래, 수면장애, 소화장애, 기관지 불편, 두통, 안구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인근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A사가 원고들에게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이 사건 이후부터 집단적으로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 우려, 유사한 사고 재발의 우려 등으로 인해 원고 등에게 장애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장이 정산적 손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손해배상금을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장에서 유출된 불산이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해 원고 등에게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사고의 위험성, 피해 정도와 치료 노력,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A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종합하면 환경오염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여러 간접사실을 통해 전체적으로 보아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 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은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해 원고 등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원고 등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 사건에서 기존 선례에 비해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부담을 완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오유나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

추구하고 있다.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뉴시스

학교 떠나는 유·초등 교사들 서울 공립 명퇴, 3년 간 최대

다음달 말 교원 489명 명퇴

다음달 명예퇴직하는 서울 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명예퇴직 예정인 서울 유·초등 교원은 48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40명) 대비 49명 늘었으며 지난 2020년(499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정년을 채우기도 전에 조기 퇴직하는 교원들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이다.

서울 유·초등 교원 명예퇴직자의 최근 5년 간 추이를 보면 ▲2019년 591명 ▲2020년 585명 ▲2021년 422명 ▲2022년 518명 ▲2023년 604명 ▲2024년(2월 말 기준) 489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큰 화두로 떠오르며 퇴직을 결정한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유·초등 교원뿐 아니라 중학교 교원들의 명예퇴직도 늘었다.

2월 말 명예퇴직하는 공립중 교원은 지난해 447명에서 올해 458명으로 11명 증가했다. 여기에 사립 중등 교원까지 합하면 다음달 명예퇴직하는 서울 유·초·중등 교원은 총 1160명에 달한다.

명예퇴직하는 공립학교 교장들도 5년 전에 비해 확연하게 증가했다. 2019년 명예퇴직한 서울 유·초·중등 교장은 총 47명인데, 지난해 66명으로 5년 동안 19명 늘었다.

이 중에서도 초등학교 교장 명예퇴직자는 2019년 7명에서 2023년 33명으로 5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립초 교장 명예퇴직자는 2019년 7명→2020년 15명→2021년 20명→2022년 25명→2023년 33명→2024년(2월 말) 20명 등으로 나타났다.

완도해경, 든든한 파트너 민간해양구조대 사무실 개소식 참관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19일 원거리 해양사고 발생 시 민·관·경 합동 해양사고 대응으로 구조 효과를 높이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금일해양구조대 사무실 개소식" 참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